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5158호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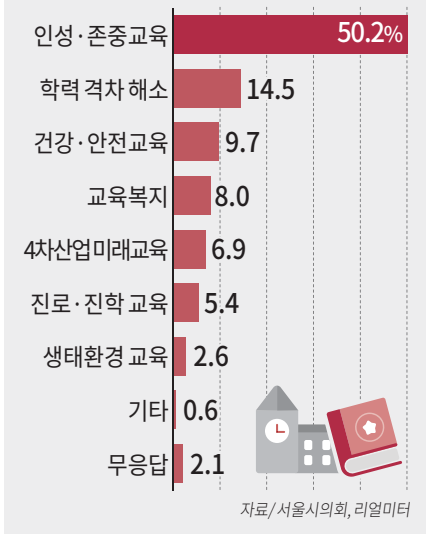
벨리곰, 꽃동산 "인증샷 성지로 봄소풍 가요"
L1

Life

외식업 벚꽃 맞이 피크닉 메뉴 '봇물'
L2

서울시민 절반 이상 교육정책 '만족'… 인성교육 우선시해야

학교 교육 최우선 해결 과제



서울시 교육 정책 시민 여론조사
유치원-초등-고등-중등 순 만족
인성 등 기본 소양 교육 강화 요구
76%,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도움 돼

서울시민의 약 53%가 서울시 교육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학교 교육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인성 및 존중 교육'을 꼽았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21~27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 정책 현안에 관한 시민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시의 교육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53.1%로, '불만족한다'(36.8%) 보다 16.3%포인트 많았다. 나머지 10.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학령기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50.1%가 '서울시 교육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56.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별로 살펴보면 유치원(69.2%), 초등학교(64.6%), 고등학교(53.4%), 중학교(50.7%) 학부모 순으로 시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서울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인성 및 존중 교육'(50.2%)을 꼽았다. 이어 '학력 격차 해소'(14.5%), '건강·안전 교육'(9.7%), '교육 복지'(8%), '4차 산업혁명 미래 교육'(6.9%), '진로·진학 교육'(5.4%), '생태 환경 교육'(2.6%) 순이었다.

서울시의 교육 정책 관련 건의 사항으로는 '인성·예절 등 기본적 소양 교육 강화'(27.6%)가 1위를 기록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6.1%),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 수립'(6%),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5.7%), '교권 강화와 교직원 처우 개선'(5.4%),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마련'(5.1%),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교육 및 지원 확대'(4.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5개 교육 정책의 효용성을 확인한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75.7%로 가장 많았다. '기초학력 지원',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도움된다'고 답한 응답 비율도 각각 73.6%, 73.2%에 달했다.

반면 '입학 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와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각각 65.1%, 61%에 그쳐 다른 정책들보다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향후 서울시 교육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양재역 일대 통합개발… '광역 교통' 거점으로

GTX 환승센터 등 입체복합 개발
입찰 거쳐 내달부터 용역 착수

서울시가 강남 도심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양재역 일대(25만㎡)를 광역 교통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내달 초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통해 양재역 중심지구로 지정된 용역 대상지에는 연구개발(R&D)·업무·상업 시설과 함께 서초구 복합청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환승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양재 GTX 환승 거점 통합 개발 마스터플랜' 예상 조감도. /서울시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양재역 일대 공공청사, 문화시설, 환승 주차장 등 핵심 거점시설에 대한 연계 개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양재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환승센터 같은 주요 교통시설 간 원활한 연결을 통한 입체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목표다. 시는 입찰 공고를 거쳐 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입체복합 개발을 유도, 도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양재역 일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적 도시공간 구상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도시계획시설이 다양한 미래사회 수요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한전-신한금융그룹

도시제조업 안전한 작업환경 만든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맞손
의류·금속 등 영세 작업장 설비 지원
제조업체 일부 선정, 화재보험 제공

서울시는 노후화된 도시 제조업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화재보험 가입 여력이 없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력,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의류봉제·금속·주얼리·인쇄·수제화 등 영세한 도시제조업 작업장 1500여곳의 생산성 향상 설비 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900만원을 보조한다. 사업장 자체 부담은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열악한 제조 현장의 불량 설비를 교체해 안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돕는다. 신한금융그룹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 기회가 제한됐던 소규모 제조업체 중 일부를 선정해 화재보험을 제공한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이사(왼쪽부터), 백우기 한국전력 남서울 본부장,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서울시

시는 내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작업환경개선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반지하 세입자 1470가구 이주 지원

침수지역 정비 등 침수방지 대책 마련

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 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지난해 9월 군·구, 인천건축사회와 건축정책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시가 이번에 마련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은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지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시는 앞으로 5년간,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안전취약계층(고령, 아동, 장애인) 세입자 171가구의 이주를 지원한다.

또 반지하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층주택 630가구의 공공매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따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하는 사업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전자상거래 피해 15%↑ 50·60대 피해상담 급증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보다 15% 증가하고, 50~60대 피해 상담이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이하 센터)는 29일 '2022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센터에 들어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8723건으로 2021년 7586건 대비 1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0대 이상의 피해 상담이 1191건(13.7%)으로, 작년(565건)보다 2.1배 늘었다.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358건 중 41.3%(148건)가 50~60대에 집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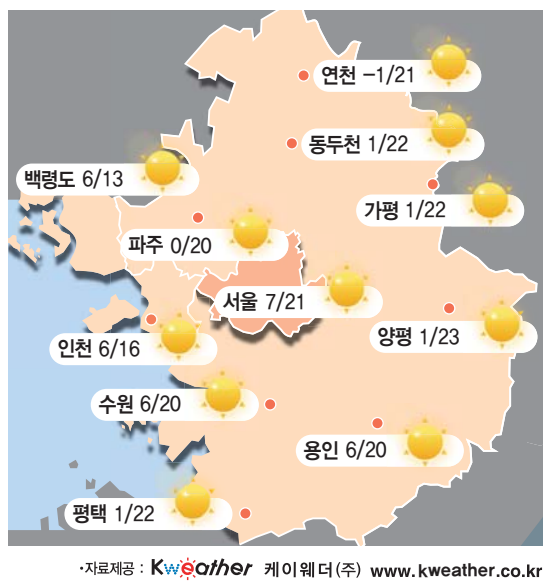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 06:22 | 해짐 / 18:52

3월 30일(木) 음력 : 2월 9일

수도권 날씨 7 ~ 2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전국남녀 쇼트트랙 선수권, 내일 의정부서 개막
▲"스포츠 진흥에 최선"…박세리, 체육진흥공단 홍보대사 /사진 뉴시스

▲피겨 銀 차준환 세계 3위 등극…이해인은 4위
▲KIA, '뒷돈 요구 의혹' 장정석 단장 해임…"용납할 수 없어"

▲데뷔골 아쉬웠던 오현규, 셀틱서 득점포 노린다
▲아르헨 이긴 사우디 르나르 감독, 4개월만에 사임 /사진 뉴시스